



친구 관계가 서툰 아이를 위한 대처법



친구의 등장, 아이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아이의 친구 관계는 서로 만날 기회 만들기부터 갈등 조정까지 엄마에게 새로운 과업이다. 임신 출산 육아 전문지 '양주' (ange.co.kr)가 친구 관계가 서툰 아이를 위한 대처법을 소개했다.

■ 내향적이라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

내향적인 성향은 친구 만들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내향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부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럴 때는 소수의 아이들과 노는 횟수를 조금씩 늘려본다. 내향적이라고 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피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일단 '함께 노는 게 즐겁다'는 것을 반복해서 느껴야 한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친구 한 명하고만 어울리려는 성향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른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 잠깐씩 자주 만나 놀게 해 본다. 처음에는 잠깐 만나 인사하고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다음에는 간식 먹고 함께 놀고, 다음에는 노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접근한다. 또 처음에는 집에서 하는 차분한 놀이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친구 집이나 낯선 장소에 가는 식으로 변화를 준다.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음악 놀이나 트랩펄린 타기 같은 동적인 놀이를 함께 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친구에게 관심 없이 혼자 노는 아이

내향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보다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 자체에 몰입하기 때문에 혼자 노는 아이도 있다. '자기 몰입형' 아이라고 하는데, 또래 아이와 놀기보다 자기 관심사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아이들은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드는 또래 아이들을 피곤하게 느낀다. 그래서 아이들을 피해 구석에 자리를 잡기도 한다.

그러니 또래들 속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먼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엄마 아빠가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과 노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특히 이런 유형의 아이는 청각이나 시각 등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감할 수 있다.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이가 편안해 하는 조명, 잔잔한 음악 등으로 감각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좋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두고 친구를 초대해 함께 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능이 뛰어나거나 과학적 관심이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몰입형'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눈 맞춤 등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불려도 반응이 없으며



호불호에 따라 관심사를 전환하는 데 격렬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 장난이 심하고,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

친구가 좋기는 한데 함께 노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흥이 많은 아이는 장난을 많이 친다. 까불까불 뛰어다니지만 다른 아이들 눈에는 귀찮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아직 눈치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좋아할 행동, 싫어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쿼트를 내듯이 상황을 알려주고 바람직한 행동의 예시를 들어준다. 에너지가 많은 아이라면 타고난 강점이 드러나도록 신체 놀이를 할 기회를 주면서 친구들이 아이의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다.

사진=shutterstock

Koko Deck Sushi

GRAND OPENING

모듬 회

회덮밥

매운 해물라면

오픈
스페셜
소주 \$6

스시롤

스시롤

돈까스

Low Price

Draft Beer

- Kirin
- Stella
- Michelop Ultra
- Space Dust IPA

Koko Deck Sushi

2966 W Ball Rd, Anaheim, CA 92804
kokodeck.com

T.714.886.2139